

영유아 손자녀와 그림책읽기 시 조모의 언어적 · 비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연구*

Analysis of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s of Grandmothers during Young Grandchildren-Grandmother Picture Book Reading

김혜진¹ 김명순²

Hye Jin Kim¹ Myoung Soon Kim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grandmothers'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s during young grandchildren-grandmother picture book reading.

Methods: Participants were fifty-two children aged 22-42 months and their grandmothers. The researcher visited participating children's homes or child care centers and videotaped grandchildren-grandmother book reading activities. Each grandmother read two picture books for each observation. Grandmother surveys were administered after the reading activities. Parent surveys were completed by parents and were returned to the researcher.

Results: First, grandmothers began reading picture books to grandchildren when children were 6 to 11-months-old or 12 to 17-months-old. They spent 5 to 10 minutes or 10 to 15 minutes at a time reading books. Second, grandmothers' most frequent verbal behavior during young grandchildren-grandmother picture book reading was 'explaining,' followed by 'questioning,' and 'providing feedback,' in that order. Grandmothers' MLU-ajeol during grandchildren-grandmother reading was 2.56. Their most frequently used nonverbal behavior was 'pointing,' followed by 'gestures.' Last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randmothers'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s during grandchildren-grandmother reading, depending on the grandmothers' characteristics.

Conclusion/Implications: Grandmothers use various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s during grandchildren-grandmother picture book reading activities,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andmothers'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s with grandchildren based on grandmothers' characteristics.

key words grandchildren-grandmother picture book reading, grandmother's verbal behavior, grandmother's MLU, grandmother's nonverbal behavior

* 본 논문은 2017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on)-15-A-00009576.

¹ 제1저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²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 kimms@yonsei.ac.kr)

I. 서론

최근 OECD 국가들에서 조부모가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Posadas,

2012). 미국에서는 2008년을 기준으로 조부모들이 비공식적 육아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
 주의 경우 만 2세 이하의 비공식적 육아 중 80%를 조부모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와 그
 리스, 벨기에의 50~65세 할머니 둘 중 한 명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Zamarro, 2011). 우리나라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증가 중인데,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례 중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봐주는 경우가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김은설 등, 2016). 영아 자녀를 둔
 취업모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의 지원을 받는 비율은 5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유
 희정 등, 2014).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조부모들이 영유아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면서 조부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Hayslip & Blumenthal, 2016).

세계 여러 국가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증가하는 이유로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길어지
 는 노년기,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등이 거론된
 다(유희정, 이술, 홍지수, 2015).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중심주의와 혈연 중시 문화가
 아직 존재하기에,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더 신뢰되고 선호된다고도 할 수 있다(이윤진,
 권미경, 김승진, 2015).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관한 연구는 조부모의 연령이나 손자녀 돌봄시간과 같은 특성에
 따라 조부모 역할의 기대 및 수행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Silverstein & Marengo, 2001). 그리
 고 최근에는 조부모의 역할 중 양육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Ny-
 land, Zeng, Nyland, & Tran, 2009). 즉 조부모는 손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돌보는 활동 외에 함께
 놀이하기, 책 읽기 등 손자녀의 발달과 학습을 돕는 역할 또한 하는 것이다(이윤진 등, 2015;
 Kennedy, 1992).

한편 영유아는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발달을 이루어나가는데, 이 중 그림책을
 읽는 활동은 영유아의 언어 학습에 이상적 맥락을 제공한다(Arnold & Whitehurst, 1994). 영유아
 가 이른 시기에 그림책을 읽는 활동에 노출되고 책을 읽는 활동을 많이 할 때, 영유아의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읽기유창성, 인쇄물 개념, 듣기 이해력, 철자법이 향상된다고 보고된다(김길숙,
 김명순, 2010; Hood, Conlon, & Andrews, 2008).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 또는 교사와의 책
 읽기 활동을 주로 다루어 왔기에(Fletcher & Reese, 2005), 오늘날 증가 중인 영유아와 조부모의
 그림책읽기 활동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른 시기부터 그림책을 읽기 시작하고 책읽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양적 측면뿐
 만 아니라 책을 읽을 때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같은 질적 측면 또한 영유아의 언어발
 달과 관련이 높다(Blewitt, Rump, Shealy, & Cook, 2009). 특히 영유아와 책읽기 상호작용을 할 때
 성인이 사용하는 언어 유형과 평균발화길이는 영유아의 언어능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다.
 즉 성인은 영유아와 함께 그림책을 보며 설명하기, 질문하기, 주의환기, 피드백 등 다양한 유형
 의 언어를 사용하며 상호작용하는데(Sénéchal, Cornell, & Broda, 1995), 영유아에게 질문과 피드
 백을 빈번하게 할수록 영유아의 어휘력 및 이야기 이해력이 높았다고 보고된다(Lee & Kim,
 2006). 그리고 책의 다음 내용을 추론 또는 예측하도록 유도하거나 책 내용과 영유아의 사전경험
 을 연결하는 상호작용이 언어발달과 긍정적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Cristofaro & Tamis-

LeMonda, 2012).

영유아와 상호작용 시 성인의 언어적 행동 유형뿐만 아니라 평균발화길이는 언어자극의 양과 복잡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에 영유아가 속해있는 언어 환경의 풍부함 정도를 보여주며,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Hoff & Naigles, 2002; Weizman & Snow, 2001). 하지만 평균발화길이는 주로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로 사용되었고(김영태, 1997; Brown, 1973), 영유아와 성인이 다양한 맥락에서 상호작용 시 성인의 평균발화길이를 알아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성인의 평균발화길이를 알아본 일부 연구에서는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는 양육 주체에 따라 성인의 평균발화길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청년의 평균발화길이가 노인보다 길었다고 한다(Kemper & Sumner, 2001). 따라서 그림책읽기 활동 시 영유아가 속한 언어 환경이 어느 정도 풍부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조부모의 평균발화길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은 영유아와 그림책을 읽으면서 언어적 상호작용과 동시에 포인팅, 제스처, 신체접촉, 공감적 행동, 반응요구 등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한다(Iverson, Capirci, Longobardi, & Caselli, 1999).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영유아와 공동주의집중(joint-attention)을 하고 영유아에게 언어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며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김명순, 한찬희, 유지영, 2012).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는 성인의 비언어적 행동은 영아의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다(김명순, 김의향, 이유진, 2012; Goodwyn, Acredolo, & Brown, 2000)고 보고되는데, 특히 포인팅과 제스처를 많이 할수록 영유아의 언어능력이 높았다(Iverson et al., 1999). 그러나 영유아와 책읽기 상호작용 시 성인의 비언어적 행동을 알아본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편이며, 연구대상이 부모나 교사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정지은, 김명순, 2012). 따라서 영유아 손자녀와 그림책읽기를 할 때 조부모의 비언어적 행동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을 때 부모의 특성에 따라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차이가 나타난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와 책읽기 활동 시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높은 교육수준의 어머니는 낮은 교육수준의 어머니보다 영아 자녀의 인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상호작용을 빈번히 하였다(박수진, 김명순, 2010).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와 책을 읽을 때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Vernon-Feagans et al., 2008). 이와 같이 양육자의 특성에 따라 그림책읽기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다면, 교육수준과 같은 조부모의 특성에 따라 조부모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조부모는 영유아 손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면서 손자녀의 언어발달과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자가 될 수 있다(Jessel, Kenner, Gregory, Ruby, & Arju, 2011). 손자녀와 책읽기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언급되나(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Nyland et al., 2009), 이와 같은 책읽기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관찰한 연구는 소수이며,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세대 간 문화를 교류하는 측면을 다룬 연구들로 국한되어 있다(Gregory, Ruby, & Kenner, 2010). 따라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영유아와 조부모의 그림책읽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부모의 책읽기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일정

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영유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경우 조모의 어떤 특성이 영유아와 조모의 그림책읽기 상호작용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모와 영유아 손자녀의 그림책읽기 활동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파악하고, 영유아 손자녀와 조모의 책읽기 활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그림책을 읽을 때 조모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조모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 시간 및 기간과 같은 조모 특성에 따라 손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상호작용 기술 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 손자녀와 조모의 그림책읽기 활동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 손자녀와 조모의 그림책읽기 활동 시 조모의 언어적 상호작용(언어적 행동과 평균발화길이)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조모의 그림책읽기 언어적 상호작용(언어적 행동과 평균발화길이)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조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22~42개월 영유아와 그들의 조모 52쌍이었다. 만 2세 전후는 어휘량이 급증하고 두 단어를 합하여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며 언어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Boysson-Bardies, 2005), 이 시기 손자녀와 조모의 책읽기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조모를 선정한 이유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중 조모가 95.6%로 대다수이기 때문이다(이윤진 등, 2015).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기준은 선행연구(NICH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를 참고하여, 손자녀를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양육하는 조모를 주타인양육자(primary non-parental caregiver)로 여겨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임의 표집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조모와 영유아 손자녀는 총 62쌍이었으나,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된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62쌍 중 3쌍은 손자녀 양육 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5쌍은 연구과정 중 영유아가 그림책읽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2쌍은 부모용 설문지가 수거되지 못하여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총 52쌍이 본 연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연구대상 영유아 52명의 성별은 남아 28명과 여아 24명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연령은 30개월 28일이었다.

〈표 1〉 손자녀 양육 조모의 특성

(N = 52)

구분	빈도(%)
연령(평균: 61세)	
51세~55세	4(7.7)
56세~60세	20(38.5)
61세~65세	21(40.4)
66세~70세	5(9.6)
71세 이상	1(1.9)
무응답	1(1.9)
손자녀와의 관계	
친조모	24(46.2)
외조모	28(53.8)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4(7.7)
중학교 졸업	7(13.5)
고등학교 졸업	31(59.6)
대학교 졸업	7(13.5)
대학원 졸업	1(1.9)
무응답	2(3.8)
주당 양육 시간	
40시간 미만	19(36.5)
40시간 이상	33(63.5)
손자녀 양육 기간(범위: 10~42개월)	
6~12개월 미만	4(7.7)
12~24개월 미만	15(28.8)
24~36개월 미만	25(48.1)
36개월 이상	8(15.4)
조모 양육 시작 시 손자녀의 월령(범위: 0~22개월)	
0~6개월 미만	36(69.2)
6~12개월 미만	6(11.5)
12~24개월 미만	10(19.2)

연구대상 조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모의 평균연령은 61세로, 61~65세가 21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손자녀와의 관계는 친조모가 24명(46.2%), 외조모가 28명(53.8%)이었다. 조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모가 31명(59.6%)으로 가장 많

았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인 조모가 19명(36.5%), 주당 40시간 이상인 조모가 33명(63.5%)이었다. 손자녀 양육 기간은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 25명(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자녀 양육을 시작할 때 손자녀의 월령은 6개월 미만일 때가 36명(69.2%)으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조모용 설문지와 부모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모와 영유아 손자녀의 그림책읽기 활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림책읽기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분석기준을 사용하여 영유아와 조모의 그림책읽기 활동 시 조모의 상호작용 행동을 분석하였다.

1) 영유아 손자녀와 조모의 그림책읽기 활동

영유아 손자녀와 조모의 그림책읽기 활동 경향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모용 설문지와 부모용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조모용 설문지는 영유아와 조모의 책읽기와 관련된 문항과 조부모 교육 이수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유아와 조모의 책읽기 관련 문항은 Whitehurst (1993)의 가정에서의 책읽기 조사연구(The Stony Brook family reading survey)와 김명순, 배선영 그리고 김지연(2013)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아동·가족학 교수 1인과 상의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했다. 책읽기 관련 설문은 총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림책을 읽기 시작한 시기, 그림책을 읽는 시간, 조모가 손자녀와 함께 책읽기 활동을 할 때 어려운 점의 내용이었다. 조부모교육 이수에 관한 설문 문항은 조부모교육 이수 여부, 이수 교육 내용, 교육 이수 또는 미 이수 이유, 조부모 대상 그림책읽기 교육 필요 여부로 구성되었다.

부모용 설문지를 통하여 영유아가 가정에서 책을 읽는 시간 및 영유아와 조모의 책읽기 활동에 부모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영유아의 가정에서 책읽기 시간은 영유아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책읽기 활동을 하는지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이때 책 읽는 시간은 영유아 혼자 또는 부모, 조부모, 기타 양육자와 함께 읽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모가 영유아 손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과 방식에 대해 부모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 만족도를 묻는 문항 1개와 방식 만족도를 묻는 문항 1개를 구성하였으며, 두 문항 모두 5점 척도였다.

2) 조모의 그림책읽기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기준

조모가 영유아 손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때 나타나는 언어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Whitehurst 등(1988) 및 Sénéchal 등(1995)의 분석기준을 기초로 한 이미화와 김명순(2004)의 분석기준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미화와 김명순(2004)은 언어적 행동 범주를 주의 환기, 설명하기, 질문하기, 피드백의 4가지로 나누었는데, 예비조사 결과 거의 관찰되지 않은 질문하기 하위범주 중 ‘어디’ 질문 범주는 분석기준에서 제외하고, 하위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발화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조모의 언어적 행동은 크게 주의환기, 설명하기, 질문하기, 반

응요구하기, 추론/예측하기, 경험 연결 및 참조하기, 피드백, 기타의 8가지로 분류되었다. 이 중 주의환기, 설명하기, 질문하기, 피드백은 다음과 같은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주의환기(언어 환기, 제한), 설명하기(명명, 묘사), 질문하기(무엇/누구, 어떻게, 기능/행동, 확인), 피드백(칭찬, 인정/확인, 따라하기, 확장, 교정). 기타에는 조모가 손자녀에게 훈육하는 발화 등이 포함되었다.

조모의 언어적 행동은 조모와 영유아의 그림책읽기 상호작용 녹화 영상 전사 후, 김영태(1997)의 발화구분원칙에 따라 1문장 1발화 원칙, 발화수 나눔 기준, 분석 제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조모의 말을 발화 단위로 나누고 사건표집법으로 빈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조모가 책 본문을 그대로 읽은 것과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말이 아니면서 그림책읽기와 관련 없는 조모의 혼잣말은 발화에서 제외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발화를 2회 이상 연속으로 반복한 것은 1회의 발화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자와 아동·가족학 석사과정 중인 보조 연구자 1명은 조모 8명에 대해 관찰자 간 일치한 항목 수를 전체 항목 수로 나눠 조모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관찰자 간 신뢰도를 산출했다. 그 결과는 .85로 나타났다.

3) 조모의 그림책읽기 비언어적 상호작용 분석기준

조모가 영유아 손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때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Feldman, Weller, Sirota 그리고 Eidelman(2003) 및 Newland, Roggman 그리고 Boyce(2001)의 연구를 기초로 한 임수경과 김명순(2013)의 분석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적 환기’ 범주는 예비조사 결과 거의 관찰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조모의 비언어적 행동 범주는 크게 포인팅, 반응요구, 제스처, 신체접촉, 공감적 행동의 5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제스처와 신체접촉은 각각 기술적 제스처와 모방적 제스처, 정서적 신체접촉과 강압적 신체접촉을 하위범주로 포함하였다. 조모의 비언어적 행동은 언어적 행동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표집법을 통해 빈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언어적 행동의 관찰자간 신뢰도 산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언어적 행동의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9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모 및 부모 설문 문항, 그림책 선정, 그리고 그림책읽기 행동 분석기준이 적절한지 파악하고 관찰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은 본 연구 대상이 아닌 만 2세 남아 1명과 여아 2명, 그리고 그들의 조모와 부모였다. 예비조사 시 그림책은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를 참고하고 아동·가족학 교수 1인과 상의 후 4권을 선정하여 사용했다. 예비조사 결과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아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잘 나타나지 않은 책이 제외되고, ‘나도 나도(최숙희, 2009)’와 ‘선이의 이불(정하섭, 2012)’ 2권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조모용 설문 문항의 경우, 기존 설문 문항의 대상이 부모였기에 조모에게 부적합한 점이 발견되어 조모에게 적절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각 가정이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부모 또는 조모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영유아와 조

모가 함께 참여 가능한 때로 가정방문일정을 잡았다.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책읽기 상호작용을 관찰하려 했지만, 조모나 부모가 가정방문을 꺼리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동의를 얻고 어린이집의 독립된 공간에서 그림책읽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대상 총 52쌍 중 가정에서 관찰이 이루어진 경우가 35쌍이었고 17쌍은 어린이집에서 관찰이 진행되었다.

책 읽는 순서가 그림책읽기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구자가 사전에 책 두 권의 순서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조모에게 제공했으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각 책을 손자녀에게 한 번씩 읽어주도록 요청하였고 두 권을 모두 읽도록 하였다. 카메라는 영유아와 조모, 책이 모두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였고, 녹화는 조모가 영유아에게 책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책읽기를 끝내는 시점까지 진행하였다.

그림책읽기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조모에게 설문지를 실시했다. 조모 설문은 조모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한 문항씩 구두로 설명하면서 진행하였고, 조모가 구두로 응답한 것을 연구자가 기록하였다. 영유아와 조모가 책읽기 시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림책읽기가 진행되는 동안 영유아의 부모에게 부모용 설문지를 제공하고 작성이 완료된 후 수거하였고, 부모가 함께 있지 않은 경우엔 영유아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작성 후 연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영유아 손자녀와 조모의 그림책읽기 활동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모용 설문지와 부모용 설문지 문항에 대해 빈도수 및 백분율과 평균을 산출했다. 둘째, 영유아 손자녀와 조모의 그림책읽기 활동 시 조모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범주별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또한 조모의 어절 단위 평균발화길이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조모의 발화를 모두 전사하고 발화구분원칙(김영태, 1997)에 근거하여 조모의 말을 발화 단위로 구분했다. 그 후 김영태(1997)의 어절 단위 평균 발화길이 측정법에 따라 조모의 각 발화 어절 수의 합을 총 발화 수로 나누어 값을 산출했다. 셋째, 영유아 손자녀와 조모의 그림책읽기 활동 시 조모의 특성에 따라 조모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했다.

Ⅲ. 연구결과

1. 영유아-조모 그림책읽기 활동

영유아 손자녀와 조모의 그림책읽기 활동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파악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첫째, 조모가 응답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손자녀와 그림책 읽기를 시작한 시

〈표 2〉 영유아-조모의 그림책읽기 활동

문항	빈도(%)
조모(N = 52)	
영유아-조모 그림책읽기 시작 시 손자녀의 월령	
0~6개월 미만	7(13.5)
6~12개월 미만	20(38.5)
12~18개월 미만	17(32.7)
18~24개월 미만	4(7.7)
24개월 이후	4(7.7)
영유아-조모 1회 그림책읽기 소요 시간	
5분 미만	9(17.3)
5~10분 미만	20(38.5)
10~15분 미만	11(21.2)
15~20분 미만	1(3.8)
20분 이상	10(19.2)
영유아-조모 하루 그림책읽기 총 소요 시간	
10분 미만	18(34.6)
10~20분 미만	13(25.0)
20~30분 미만	7(13.5)
30~60분 미만	7(13.5)
60분 이상	7(13.5)
부모(N = 52)	
부모가 응답한 하루 평균 영유아 책읽기 총 시간(평균: 약 35분)	
10분 미만	2(3.8)
10~20분 미만	11(21.2)
20~30분 미만	16(30.8)
30~60분 미만	15(28.8)
60분 이상	8(15.4)
영유아 책읽기 총 시간에서 조모가 책 읽어주는 비율	
0~20%	13(25.0)
20~40%	14(26.9)
40~60%	13(25.0)
60~80%	9(17.3)
80~100%	3(5.8)

〈표 2〉 계속

문항	빈도(%)
영유아-조모의 책읽기 시간의 양에 대한 부모의 만족 정도	
매우 부족	6(11.5)
부족	11(21.2)
보통	21(40.4)
충분	11(21.2)
매우 충분	3(5.8)
영유아-조모의 책읽기 방식에 대한 부모의 만족 정도	
매우 불만족	0(.0)
불만족	1(1.9)
보통	11(21.2)
만족	26(50.0)
매우 만족	14(26.9)

기는 손자녀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일 때가 38.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32.7%가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손자녀와 한 번 그림책을 읽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상 10분 미만이 38.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21.2%가 10분 이상 15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하루 동안 손자녀와 그림책 읽는 총시간에 대해서는 10분 미만이라는 조모가 34.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25.0%가 10분 이상 20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영유아-조모 그림책읽기에 대해 부모가 응답한 설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에서 영유아가 하루 동안 책을 읽는 시간은 평균 약 35분으로, 20분 이상 30분 미만이 가장 많았고(30.8%), 그다음으로는 28.8%가 30분 이상 60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총 책읽기 시간 중에서 부모들이 인식하는 조모가 읽어주는 비율을 알아본 결과, 20~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6.9%). 즉 부모는 조모가 하루 동안 영유아 손자녀에게 책을 7~14분 가량 읽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모가 영유아 손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의 양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영유아의 부모에게 물은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조모가 영유아에게 책 읽어주는 방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매우 만족이 26.9%이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조모에게 손자녀와 그림책 읽기 시 어려운 점 두 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책을 읽어줄 때 영유아 손자녀의 행동이나 반응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그림책 선정의 어려움 36.5%, 그림책 상호작용 기술 부족 34.6%, 조모 본인의 신체적 어려움(예: 손목 통증 등) 34.6%, 그림책 읽기 시간 부족 21.2%, 보유한 그림책 수량 부족 3.8%의 순이었다.

조모에게 그림책읽기 조부모교육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92.3%가 ‘필요하다’에, 7.7%가 ‘필요

없다’에 응답하여 대부분의 조모가 조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은 결과, 84.6%의 조모가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조모가 어떠한 조부모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9.1%는 그러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시간이 부족해서(51.9%), 교육을 이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44.4%), 손자녀를 양육하게 될 줄 몰라서(18.5%),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기회가 닿지 않아서(18.5%)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2. 영유아-조모 그림책읽기 시 조모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

1) 조모의 그림책읽기 시 언어적 행동

조모가 영유아 손자녀와 한 권의 책을 읽는 데 소요된 평균 시간은 약 4분 27초이었고, 두 권 모두를 읽는 데에는 평균 약 8분 56초가 걸렸다. 두 권 읽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장 짧게 소요된 시간은 4분이었고 가장 길게 소요된 시간은 16분 38초이었다. 영유아와 조모의 두 권의 그림책 읽기 시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 모두를 분석했으나, 두 권을 평균 내어 한 권 기준으로 결과를 산출했다. 그리하여 조모가 책 한 권을 읽을 때 나타낸 언어적 행동은 총 79.70회 ($SD = 35.33$)이었다.

그림책을 읽으면서 조모가 가장 많이 나타낸 언어적 행동 범주는 설명하기($M = 23.79$)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질문하기($M = 16.62$), 피드백($M = 12.32$), 주의환기($M = 11.66$), 추론/예측하기($M = 6.92$), 경험 연결 및 참조하기($M = 5.58$), 반응요구하기($M = 2.52$), 기타($M = .31$)의 순이었다.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설명하기 하위범주에서는 묘사($M = 16.12$)가 명명($M = 7.66$)보다 빈번하게 나타났다. 질문하기 하위범주 중에서는 ‘무엇/누구’ 질문($M = 8.07$)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그 뒤로 ‘확인’ 질문($M = 5.54$)이 많았으며, ‘어떻게’ 질문($M = 1.84$)과 ‘기능/행동’ 질문($M = 1.17$)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피드백의 하위범주 중에서는 인정/확인($M = 6.36$)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뒤로 따라하기($M = 2.21$), 칭찬($M = 1.80$), 확장($M = 1.28$), 교정($M = .67$)의 순이었다. 주의환기 범주에서는 언어환기($M = 10.71$)가 제한($M = .95$)보다 빈번하게 나타났다.

즉 조모는 영유아 손자녀와 그림책을 보면서 책에 등장하는 대상의 행동이나 상태에 관해 설명을 하는 언어적 행동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우와~”와 같은 감탄사를 통해 영유아의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빈번히 보였다. 또한 “이게 뭐지?”처럼 사물의 이름 또는 속성을 물어보는 질문이나 영유아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많이 하고, 영유아의 말 또는 행동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는 반응적 행동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책의 내용을 추론 및 예측하고 영유아의 일상 경험과 연결하는 말도 비교적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모의 그림책읽기 시 평균발화길이

조모와 영유아가 그림책을 읽을 때의 조모의 발화를 전사하고 이를 어절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모의 평균발화길이는 2.56($SD = .46$)으로 나타났고, 범위는 1.68에서 3.73이었다. 즉 조

모는 영유아 손자녀와 그림책을 읽으며 책 내용에 관해 대화를 할 때 평균적으로 2~3개의 어절로 구성된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3) 조모의 그림책읽기 시 비언어적 행동

조모와 영유아 손자녀가 그림책을 읽는 동안 조모의 비언어적 행동이 나타난 횟수는 책 한 권 기준으로 40.20회($SD = 20.20$)이었다. 책읽기 활동 시 조모가 가장 많이 나타난 비언어적 행동은 포인팅($M = 24.93$)이었고, 그 뒤로는 제스처($M = 6.32$), 반응요구($M = 4.94$), 공감적 행동($M = 2.57$), 신체접촉($M = 1.44$)의 순이었다. 제스처의 하위범주 중에서 기술적 제스처($M = 6.13$)는 조모가 많이 하는 반면 모방적 제스처($M = .19$)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조모는 손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때 손가락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행동을 가장 빈번하게 하였고, 그림책에 등장하는 사물 또는 사건을 묘사하는 행동과 영유아의 반응을 기대하는 행동도 비교적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의 행동 모방이나 영유아와의 정서적 또는 강압적 신체접촉은 드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모의 특성에 따른 조모의 그림책읽기 시 언어적 · 비언어적 상호작용 차이

1) 조모의 특성에 따른 조모의 언어적 행동 차이

조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양육특성에 따라 그림책을 읽을 때 언어적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했다. 조모 연령에 따라서는, 60세 이하의 조모가 61세 이상의 조모보다 ‘기능/행동’ 질문을 많이 하였다($t = 2.08, p < .05$). 낮은 연령의 조모가 높은 연령의 조모보다 영유아 손자녀와 책을 읽을 때 대상의 행동이나 사물의 기능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 것이다. 조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조모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조모보다 ‘추론/예측’을 많이 하였다($t = -2.99, p < .01$). 즉 높은 교육수준의 조모가 낮은 교육수준의 조모보다 손자녀와 책읽기 시 추론 및 예측하는 설명이나 질문을 많이 했다. 조모의 주당 양육 시간에 따라서는, 그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조모가 40시간 미만인 조모보다 ‘반응요구’($t = -2.50, p < .05$), 그리고 ‘교정’($t = -2.45, p < .05$)을 많이 하였다. 즉 주당 양육 시간이 긴 조모가 짧은 조모보다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을 영유아에게 제안 또는 지시하는 발화를 많이 했고, 영유아의 말이나 행동을 교정하는 발화를 많이 했다. 조모의 양육 기간에 따른 언어적 행동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모의 특성에 따른 조모의 평균발화길이 차이

그림책읽기 시 조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양육특성에 따라 어절 단위 평균발화길이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조모의 특성에 따라 조모의 평균발화길이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조모의 특성에 따른 조모의 비언어적 행동 차이

조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양육특성에 따라 그림책을 읽을 때 비언어적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조모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조모보다 ‘제스처’($t = -3.32, p < .01$)와 ‘제스처’의 하위범주인 ‘기술적 제스처’($t = -3.21, p < .01$)를 많이 하였다. 즉 높은 교육수준의 조모가 낮은 교육수준의 조모보다 손자녀와 책읽기 시 사건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비언어적 행동을 빈번하게 했다. 양육 시간에 따라서는, 주당 40시간 이상 양육하는 조모가 40시간 미만으로 양육하는 조모보다 ‘신체접촉’을 많이 하였다($t = -2.30, p < .05$). 양육 기간에 따라서는, 양육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조모보다 24개월 미만인 경우가 ‘제스처’($t = 3.06, p < .01$)와 ‘제스처’의 하위범주인 ‘기술적 제스처’($t = 3.09, p < .01$)를 많이 하였다. 즉 손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짧은 조모가 그 기간이 긴 조모보다 손자녀와 그림책읽기 시 사건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비언어적 행동을 빈번하게 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할머니 세 명 중 두 명은 손자녀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거나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시기에 손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들은 영아가 처음으로 어휘를 표현하고 어휘량이 급증하는 18개월 미만의 중요한 시기에 영유아 손자녀와 책읽기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시기와 비슷한 결과인데,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영아가 부모와 책읽기를 7.6개월(DeBaryshe, 1993)에서 9개월(Sénéchal, LeFevre, Thomas, & Daley, 1998)사이 시작함을 보고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아버지와 어머니 1,6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가 8개월경일 때 그림책을 처음으로 읽어주었다고 하였다(김명순, 권희경, 2002).

조모와 영유아 손자녀의 그림책 읽기 시간과 관련해서는 한 번 그림책을 볼 때 5분 이상 10분 미만 또는 10분 이상 15분 미만 정도로 본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앞서 언급된 국내의 연구(김명순, 권희경, 2002)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한 번 읽을 때 평균적으로 13.5분이 소요된다는 결과와 둘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만 2세 자녀와 책을 한 번 볼 때 6~15분 가량 걸린다는 결과(김명순 등, 2013)와 비교하였을 때, 조모-손자녀 책읽기 시간도 유사하게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들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처럼 어린 시기부터 손자녀에게 비슷한 양의 책읽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영유아가 가정에서 하루 동안 책읽기 활동을 하는 총시간은 평균 약 35분으로, 이 중 조모와 책을 읽는 비율은 20~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즉 영유아의 부모는 조모가 손자녀와 하루 동안 책을 7~14분 정도 함께 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조모에게 설문한 결과 할머니 두 명 중 한 명이 영유아 손자녀에게 하루에 0~20분 가량 책을 읽어준다고 답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부모가 인식하는 영유아-조모 그림책읽기 양과 실제 그림책읽기 양이 비슷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가정에서 영유아와 책읽기 활동을

하는 대상은 부모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조부모 또는 형제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Nyland et al., 2009; Renshaw, 1994)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조모가 영유아 손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의 양에 대하여 영유아의 부모가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조모가 책을 읽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네 명 중 세 명의 부모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즉 영유아의 부모는 할머니가 책을 어떻게 읽어주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할머니가 책 읽어주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에 아쉬움을 더욱 느끼고 있었다.

영유아 손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조모에게 묻은 결과, 책 읽기 시 손자녀의 행동이나 반응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답한 조모가 가장 많았다. 즉 다수의 할머니들이 손자녀가 책 읽는 중간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거나 책에 집중하지 않을 때 그러한 행동을 적절히 다루는 기술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그림책 선정의 어려움, 그림책 상호작용 기술 부족 등도 빈번히 지적되고 있으므로 추후 조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시 조부모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모에게 영유아 손자녀와의 그림책읽기와 관련된 조부모교육이 필요한지 묻은 결과, 대다수인 92.3%의 조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만 2세 영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명순 등, 2013)에서 연구대상 아버지의 92.8%가 그림책읽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아주 비슷한 결과이다. 즉 영유아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할머니도 그림책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고,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해주기 위해 그림책읽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조모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조부모교육 이수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연구대상 조모 총 52명 중 8명(15.4%)만 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국의 조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는 500명 중 12명(2.4%)뿐인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이윤진 등, 2015)와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 할머니들의 조부모교육 이수 비율은 비교적 높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조모들이 교육프로그램 노출과 접근이 쉬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조부모 교육프로그램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윤진 등, 2015). 하지만 본 연구와 선행연구(이윤진 등, 2015)에서 조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고려했을 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조모가 영유아 손자녀와 그림책읽기 시 조모의 언어적 행동을 알아본 결과, 손자녀가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질문하기, 피드백, 주의환기의 순이었다. 이는 부모가 그림책읽기 상호작용 시 나타내는 언어적 행동과 유사한데, 부모도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때 그림책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채유진, 김명순, 1999; Bartanusz & Šulová, 2003).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설명하기’의 하위범주 중에서는 ‘묘사’가 ‘명명’보다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하위 범주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영유아와 책을 읽을 때 묘사하는 말을 많이 했다는 연구결과(채유진, 김명순, 1999)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할

머니도 부모와 유사하게 그림책에 등장하는 대상의 상태나 행동을 영유아에게 설명하는 상호작용을 주로 하면서 책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질문하기’의 하위범주에서는 ‘무엇/누구’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확인’ 질문이 많이 나타났고, ‘어떻게’ 질문과 ‘기능/행동’ 질문은 적었다. 이는 부모가 영유아 자녀와 책을 읽을 때 ‘무엇/누구’ 질문을 많이 하는 반면 ‘어떻게’ 질문과 ‘기능/행동’ 질문은 비교적 많이 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임수경, 김명순, 2013; Sénéchal et al., 1995)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할머니는 부모와 비슷하게 영유아 손자녀와 그림책읽기 상호작용을 할 때 “이게 뭐야?”처럼 책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또는 속성을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하고, “이 토끼가 어떻게 뛰고 있어?”와 같이 행동이나 방법과 관련된 질문은 상대적으로 덜 한다고 볼 수 있다. ‘피드백’의 하위 범주에서는 영유아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인정을 표하거나 확인하는 ‘인정/확인’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영유아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따라하기’, 영유아의 말 또는 행동을 칭찬해주는 ‘칭찬’, 영유아가 한 말에 첨가하여 말하는 ‘확장’이 그 뒤를 이었다. 영유아가 한 말이나 영유아의 행동에 비동의하거나 수정하여 말하는 ‘교정’은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영유아와 책읽기 시 인정/확인 및 영유아를 따라하는 피드백을 빈번히 하고 교정하는 말은 적게 했다는 선행연구(임수경, 김명순, 2013) 결과와 일치한다. 즉 영유아 손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할머니는 영유아의 부모와 동일하게 “맞아.”처럼 손자녀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말을 많이 하고, “이건 멍멍이 아닌데.”와 같이 손자녀의 말이나 행동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교정하는 발화는 적게 했다.

조모의 언어적 행동 중 그림책 관련 내용을 추론 또는 예측하는 발화는 전체 발화의 약 10%를 차지하면서, 하위 범주인 묘사, 언어 환기, 무엇/누구 질문, 멍멍의 뒤를 이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유아 자녀와 책읽기 상호작용 시 부모의 추론/예측하는 발화가 적었다는 선행연구(노수민, 2014; 노정임, 2012)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서는 두 가지가 추측되는데, 하나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책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언어적 행동 범주로 인한 것이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책 두 권 중 한 권의 내용이 등장하는 동물들을 예측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할머니가 손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추론하고 예측하는 말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에서는 ‘추론/예측’이 ‘설명하기’ 하위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론 또는 예측하는 ‘설명’과 ‘질문’을 같이 ‘추론/예측하기’로 범주화했다. 그리하여 ‘추론/예측하기’에 추론·예측하는 설명과 질문이 모두 포함되어 ‘추론/예측하기’ 빈도가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조모의 언어적 행동 중 영유아 손자녀의 일상경험과 연결하거나 주변 사물을 참조하는 발화는 전체 발화 중 7%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아버지가 영유아 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볼 때 자녀의 사전경험과 연결하는 말을 빈번히 한다고 보고했는데(노수민, 2014; 임수경, 김명순, 2013),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조모와 영유아 손자녀가 그림책읽기 상호작용을 할 때 조모의 어절 단위 평균발화길이는 2.56이었다. 즉 할머니는 영유아에게 “이게 뭐지?”와 같은 2어절과 “OO도 토끼처럼 뛰어봐.”와 같은 3어절 사이의 발화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영유아와 책읽기 활동을 할 때 부모의 평균발화길이와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림책읽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본 배선영(2014)의 연구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비참여하는 집단의 아버지들이 만 2세 자녀와 그림책읽기 시 단어 단위 평균발화길이가 2.60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단어(낱말) 단위 평균발화길이가보다 어절 단위 평균발화길이가 더 적은 수치를 보인다(김영태, 1997)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대상 조모의 책읽기 상호작용 시 평균발화길이는 영유아의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영유아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돌봐주는 할머니들의 경우, 부모와 비슷한 정도로 언어 자극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배선영(2014)의 연구에서 그림책읽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평균 발화길이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조부모들에게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영유아 손자녀에게 더욱 질 좋은 언어 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조모와 영유아 손자녀의 그림책읽기 시 조모의 비언어적 행동을 알아본 결과, 포인팅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영유아 자녀와 책을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포인팅을 가장 많이 보였다는 연구결과(Iverson et al., 1999)와 일치한다. ‘포인팅’ 다음으로 ‘제스처’를 많이 했는데, 그 하위 범주 중에서는 ‘기술적 제스처’가 대부분이었고 ‘모방적 제스처’는 아주 드물게 관찰되었다. 이는 부모가 책읽기 상호작용을 할 때 그림책의 사물이나 내용을 묘사하는 기술적 제스처를 빈번히 사용하였다는 선행연구(노정임, 2012; Gelman et al., 1998)와 모방적 제스처의 빈도는 가장 낮았다는 선행연구(임수경, 김명순, 2013) 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이다. 즉 할머니들은 영유아의 부모와 유사하게 몸짓과 손짓 등을 이용하여 책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사물을 묘사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책 내용을 더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전달하려고 했다.

영유아 손자녀와 책읽기 상호작용을 할 때 조모의 비언어적 행동 중에서 ‘신체접촉’은 낮은 빈도로 관찰되었고, ‘정서적 신체접촉’과 ‘강압적 신체접촉’ 두 하위범주 모두 적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영유아 자녀와 책을 읽을 때 포인팅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행동보다 신체접촉을 적게 하였다는 선행연구(노정임, 2012)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할머니들도 부모들처럼 책읽기 동안에는 영유아와의 신체접촉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책을 읽는 활동이 영유아의 즐거움에 초점이 있기보다 학습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에(김명순, 1999), 그림책을 읽을 때 신체적 접촉이 더 드물게 나타났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조모의 읽기 신념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손자녀와 그림책을 읽을 때 조모의 특성에 따라서 조모의 언어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모의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주당 양육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낮은 연령의 할머니가 높은 연령의 할머니보다 책에 등장하는 특정 대상의 행동 및 기능에 대하여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했다.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그림책을 볼 때 부모가 기능이나 행동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수록 영유아의 언어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감안했을 때(Whitehurst et al., 1988), 질문 유형에 관한 내용이 조부모교육에 포함되고 조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조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높은 교육수준의 할머니가 낮은 교육수준의 할머니보다 영유아 손자녀에게 인지적 자극이 되는 추론 및 예측을 하는 발화를 많이 했다. 이는 18~24개월의 자녀와 책을 읽을 때 높은 교육수준의 어머니가 낮은 교육수

준의 어머니보다 영아 자녀의 인지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더 빈번하게 한다는 연구결과(박수진, 김명순, 2010)와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주당 양육 시간과 관련해서는 손자녀 양육 시간이 긴 할머니가 그 시간이 짧은 할머니보다 “토끼. 따라 해봐.”처럼 영유아에게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을 권유하거나 지시하는 말을 빈번하게 했다. 그리고 손자녀 양육 시간이 긴 조모는 “그거는 신발 아니잖아.”처럼 영유아의 말이나 행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것을 정정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조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시간에 따라 그 내용을 차별화하고 프로그램 실행 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시간이 긴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의 방식을 통해 교육을 개별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조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양육 특성에 따라 영유아 손자녀와 그림책을 읽을 때 조모의 평균발화길이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본 결과, 그 차이는 없었다. 즉 할머니는 손자녀와 함께 책 읽는 활동을 할 때 할머니의 특성과 관계없이 부모와 비슷한 정도의 언어 자극을 제공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Vernon-Feagans 등(2008)은 어머니가 영아 자녀와 그림책을 읽을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특성에 따라 언어의 복잡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심도 있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조모의 특성에 따라 조모가 사용하는 비언어적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교육 수준, 주당 양육 시간, 그리고 양육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먼저, 높은 교육수준의 할머니가 낮은 교육수준의 할머니보다 그림책의 사물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몸짓 또는 손짓을 많이 했다. 영유아와 그림책을 읽을 때 부모가 제스처를 많이 하는 것과 영유아의 언어능력 간에 관련성이 있기에(Goodwyn et al., 2000), 조부모교육 시 제스처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조모의 주당 양육 시간과 관련해서는 손자녀 양육 시간이 긴 할머니가 그 시간이 짧은 할머니보다 정서적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주의집중을 유도하는 신체접촉을 많이 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들의 경우 손자녀와의 친밀도가 높아 영유아 손자녀를 안아 주거나 쓰다듬는 스킨십을 많이 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손자녀 양육 기간에 따른 비언어적 행동의 차이로는 제스처, 그리고 그 하위범주인 기술적 제스처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손자녀 양육 기간이 짧은 할머니가 그 기간이 긴 할머니보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사물을 설명하는 손짓이나 몸짓을 많이 했다. 한 선행연구(김미영, 2001)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긴 조부모가 그 기간이 12개월 이하로 짧은 경우보다 우울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함을 고려할 때, 손자녀를 오랫동안 돌봐온 할머니들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조모와 영유아 손자녀, 그리고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영유아 그림책읽기 활동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직접 관찰을 통해 영유아와 조모가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조모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그림책읽기 활동을 양과 질의 다각적 측면으로 살펴봤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가정의 22~42개월 영유아, 그리고 영유아의 조모와 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 수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요구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상을 포함하고 대상수를 확대하며 영유아의 연령 폭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선정한 두 권의 책이 사용되었는데, 추후에는 책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관찰연구로 촬영효과로 인해 영유아와 조모 간 상호작용이 실제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루어졌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시기와 시간, 상황을 달리하고 여러 번 반복 관찰을 통해 관찰자 효과를 줄이고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와 조모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유아와 조부모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종단적으로 영유아 손자녀의 언어발달을 살펴봄으로써 손자녀의 언어발달에 조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길숙, 김명순 (2010).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2), 119-133.
- 김명순 (1999). 4-5세 아동의 읽기·쓰기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의 문해 환경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13**, 120-131.
- 김명순, 권희경 (2002).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동 문해 발달에 대한 태도 및 가정 문해환경.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1), 147-162.
- 김명순, 김의향, 이유진 (2012). 영아의 차례 말기와 어휘발달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2), 75-84. doi:10.6115/khea.2012.50.2.075
- 김명순, 배선영, 김지연 (2013). 영아-아버지 그림책 읽기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과 참여 실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277-297.
- 김명순, 한찬희, 유지영 (2012). 가정문해활동,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와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3**(3), 199-213. doi:10.5723/KJCS.2012.33.3.199
- 김미영 (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1997).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 5-26.
- 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최효미, 배운진, 양미선 등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노수민 (2014). 아버지 문해신념 및 아버지의 그림책 읽기행동과 만 2세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

- 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정임 (2012). 영아-어머니의 그림책읽기 행동과 12~18개월 영아의 어휘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김명순 (2010).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18~24개월 영아의 가정문해환경 및 어머니의 상호반응적 교수행동과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4), 15-27.
- 배선영 (2014). 아버지-영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대화식 그림책읽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유희정, 이슬, 홍지수 (2015).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희정, 홍승아, 김지혜, 이슬, 동제연, 이향란 (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화, 김명순 (2004). 영아를 위한 대화식 그림책읽기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25**(2), 41-57.
- 이윤진, 권미경, 김승진 (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임수경, 김명순 (2013). 만 2세 영아-어머니, 영아-아버지의 그림책 읽기행동 및 가정문해환경과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4**(3), 1-19. doi:10.5723/KJCS.2013.34.3.1
- 정지은, 김명순 (2012). 영아반 그림책 읽기 활동, 교사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및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3**(4), 91-106. doi:10.5723/KJCS.2012.33.4.91
- 정하섭 (2012). **선이의 이불**. 서울: 웅진주니어.
- 채유진, 김명순 (1999). 1, 2세 영아-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책 읽기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20**(2), 125-138.
- 최숙희 (2009). **나도나도**. 파주: 웅진주니어.
- Arnold, D. S., & Whitehurst, G. J. (1994).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A summary of dialogic reading and its effects. In D. K. Dickinson (Ed.), *Bridges to literacy: Children, families, and schools* (pp. 103-128). Oxford, UK: Blackwell.
- Bartanusz, Š., & Šulová, L. (2003). Functional analysis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young child and his father or mother when reading an illustrated book.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8*(2), 113-134. doi:10.1007/BF03173480
- Blewitt, P., Rump, K. M., Shealy, S. E., & Cook, S. A. (2009). Shared book reading: When and how questions affect young children's wor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2), 294-304. doi:10.1037/a0013844
- Boysson-Bardies, B. D. (2005). Comment la parole vient aux enfants, **영아 언어의 이해**(강옥경, 김명순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1996).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ristofaro, T. N., & Tamis-LeMonda, C. S. (2012). Mother-child conversations at 36 months and at pre-kindergarten: Relations to children's school readin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12(1), 68-97. doi:10.1177/1468798411416879
- DeBaryshe, B. D. (1993). Joint picture-book reading correlates of early oral language skill. *Journal of Child Language*, 20(2), 455-461. doi:10.1017/S0305000900008370
- Feldman, R., Weller, A., Sirota, L., & Eidelman, A. I. (2003). Testing a family intervention hypothesis: The contribution of mother-infant skin-to-skin contact (kangaroo care) to family interaction, proximity, and tou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1), 94-107. doi:10.1037/0893-3200.17.1.94
- Fletcher, K. L., & Reese, E. (2005). Picture book reading with young children: A conceptual framework. *Developmental Review*, 25(1), 64-103. doi:10.1016/j.dr.2004.08.009
- Gelman, S. A., Coley, J. D., Rosengren, K. S., Hartman, E., Pappas, A., & Keil, F. C. (1998). Beyond labeling: The role of maternal input in the acquisition of richly structured categori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3(1), 1-148. doi:10.2307/1166211
- Goodwyn, S. W., Acredolo, L. P., & Brown, C. A. (2000). Impact of symbolic gesturing on early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4(2), 81-103. doi:10.1023/A:1006653828895
- Gregory, E., Arju, T., Jessel, J., Kenner, C., & Ruby, M. (2007). Snow White in different guises: Interlingual and intercultural exchanges between grandparents and young children at home in East Lond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7(1), 5-25. doi:10.1177/1468798407074831
- Gregory, E., Ruby, M., & Kenner, C. (2010). Modelling and close observation: Ways of teaching and learning between third-generation Bangladeshi British children and their grandparents in London. *Early Years*, 30(2), 161-173. doi:10.1080/09575146.2010.484799
- Hayslip, B., & Blumenthal, H. (2016). Grandparenthood: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H. Meyer & E. A. Daniele (Eds.), *Gerontology: Changes, challenges, and solutions* (Vol. 2, pp. 271-298). Santa Barbara, CA: ABC-CLIO.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2), 418-433. doi:10.1111/1467-8624.00415
- Hood, M., Conlon, E., & Andrews, G. (2008). Preschool home literacy practices and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0(2), 252-271. doi:10.1037/0022-0663.100.2.252
- Iverson, J. M., Capirci, O., Longobardi, E., & Caselli, M. C. (1999). Gesturing in mother-child interactions. *Cognitive Development*, 14(1), 57-75. doi:10.1016/S0885-2014(99)80018-5
- Jessel, J., Kenner, C., Gregory, E., Ruby, M., & Arju, T. (2011). Different spaces: Learning and

- literacy with children and their grandparents in east London homes. *Linguistics and Education*, 22(1), 37-50. doi:10.1016/j.linged.2010.11.008
- Kemper, S., & Sumner, A. (2001). The structure of verbal abilities in young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6(2), 312-322. doi:10.1037/0882-7974.16.2.312
- Kennedy, G. E. (1992). Shared activitie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70(1), 211-227. doi:10.2466/pr0.1992.70.1.211
- Lee, K. Y., & Kim, M. S. (2006). Mother-child interactions in picture-book reading and children's language ability among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ARAHE*, 13(1), 39-49.
- Newland, L. A., Roggman, L. A., & Boyce, L. K. (2001). The development of social toy play and language in infanc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4(1), 1-25. doi:10.1016/S0163-6383(01)00067-4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3), 269-306. doi:10.1016/S0885-2006(96)90009-5
- Nyland, B., Zeng, X., Nyland, C., & Tran, L. (2009). Grandparents as educators and carers in China.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7(1), 46-57. doi:10.1177/1476718X08098353
- Posadas, J. (2012). *Grandparents as child care providers: Factors to consider when designing child care policies* (PREM Economic Premise No. 101). Washington, DC: World Bank.
- Renshaw, P. (1994). The reading partnerships of children in the transition to school. *The Australian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cy*, 17(4), 276-287.
- Sénéchal, M., Cornell, E. H., & Broda, L. S. (1995).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 of parent-infant interactions during picture-book read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3), 317-337. doi:10.1016/0885-2006(95)90010-1
- Sénéchal, M., LeFevre, J. A., Thomas, E. M., & Daley, K. E. (1998). Differential effects of home literacy experiences on the development of oral and written language. *Reading Research Quarterly*, 33(1), 96-116. doi:10.1598/RRQ.33.1.5
- Silverstein, M., & Marengo, A. (2001). How Americans enact the grandparent role across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22(4), 493-522. doi:10.1177/019251301022004006
- van Kleeck, A., Stahl, S. A., & Bauer, E. B. (2003). *On reading books to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Vernon-Feagans, L., Pancsofar, N., Willoughby, M., Odom, E., Quade, A., & Cox, M. (2008). Predictors of maternal language to infants during a picture book task in the home: Family SES, child characteristics and the parenting environ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213-226. doi:10.1016/j.appdev.2008.02.007
- Weizman, Z. O., & Snow, C. E. (2001). Lexical input as related to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Effects of sophisticated exposure and support for mea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7(2),

265-279. doi:10.1037/0012-1649.37.2.265

Whitehurst, G. J. (1993). *The Stony Brook family reading survey*. Stony Brook, NY: Author.

Whitehurst, G. J., Falco, F. L., Lonigan, C. J., Fischel, J. E., DeBaryshe, B. D., Valdez-Menchaca, M. C., et al. (1988).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552-559. doi:10.1037/0012-1649.24.4.552

Zamarro, G. (2011). *Family labor participation and child care decisions: The role of grannies* (RAND Working Paper Series No. WR-833). Santa Monica, CA: RAND.

논문투고: 17.10.14
수정원고접수: 17.11.20
최종게재결정: 17.12.07